

올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사회자에 장현성·유인나

28일 전주돔서 개막식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장현성, 유인나를 선정했다.

축제와 방역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막바지 준비에 이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장현성과 유인나를 선정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개막식이 3년 만에 전주돔에서 열리기 때문에 사회자 선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훌륭한 연기력은 물론, 유려한 말솜씨를 갖고 있으면서 친근한 이미지인 장현성, 유인나 배우가 개막식 진행을 맡게 되었다. 전주국제영화제와의 좋은 인연이 시작될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현성은 탄탄한 연기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장르를 불문하고 매 작품마다 몰입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흡인력 있는 언변의 소유자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이야기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인나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수의 프로그램 MC와 라디오 DJ를 맡아 센스 있는 진행과 더불어 높은 공감 능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두 배우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은 이들의 이미 입증된 진행 실력에 위트와 재치가 더해져 보다 더 활기찬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은 오후 6시부터 170여 명의 게스트 레드카펫 입장으로 포문을 연다. 3년 만에 전주돔에서 개막식을 진행하는 만큼 수많은 게스트들



장현성



유인나

이 자리를 빛낼 예정인 가운데, 빠른 매진으로 개막식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관객들도 전주돔 외부에서 레드카펫을 밟는 영화인들을 관람할 수 있다.

오후 7시부터는 장현성, 유인나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며, 김승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이준동 집행위원장의 각 경쟁 섹션별 심사위원 소개 이어 개막작 *애프터 양 After Yang*의 코고나다(Kogonada) 감독의 인사 영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개막작 *애프터 양*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안드로이드 로봇의 사적인 기억을 통해, 관객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다. 코고나다 감독은 최근 공개된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2022)의 연출을 맡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애프터 양* 상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

에드 시러, 키우에서 촬영한 뮤비 공개... 수익 기부

영국 스타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러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섰다. 지난 22일 워너뮤직 코리아에 따르면 시러는 새로운 버전의 '부스텝(Step)' 뮤직비디오와 음원 수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자신 단체 DEC(Dissasters Emergency Committee)에 기부한다.

해당 곡은 작년에 발매된 멀티 플래티넘 앨범 *[=]*에 수록된 원곡 '부스텝'에 그래픽 수상 레퍼인 릴 베이비(Lil Baby)의 퍼처링이 더해진 버전이다.

특히 이번 '부스텝' 뮤직비디오는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촬영됐다. 헨리 스킵펠드(Henry Schiefel)가 감독했으며 독특한 안무 비디오가 키우의 도시 풍경을 매끄럽게 가로지르며 전환된다.

에드 시러는 워너뮤직을 통해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파괴적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부스텝'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우크라이나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제작진으

로부터 머무르는 동안 큰 환영을 받았다"고 돌아왔다.

"우크라이나는 자랑스럽고 회복력이 강한 나라이며 그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기회를 갖게 돼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러는 지난달에 ITV채널에서 연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선 콘서트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뮤직비디오 프로젝트인 라디오티브필름(Radioactivefilm)은 "이 뮤직비디오는 우리의 최고의 시절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기 전에 촬영한 마지막 비디오여서 이 비디오를 보면 약간의 정상적인 감정과 행복감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들도 이 비디오를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발매된 시러의 메가 히트곡 *배드 해비츠(Bad Habits)*는 최근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이하늘 막말 때문에 베이비복스 해체”

윤승룡 전 DR뮤직 대표

윤승룡 전 DR뮤직 대표가 DJ DOC 이하늘의 막말 때문에 그룹 베이비복스를 해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이비복스를 제작한 윤 대표는 지난 21일 유튜브 김용호와 인터뷰에서 "베이비복스가 2004년 7집 타이틀곡 '엑스타시(Xstasy)'를 발매하면서부터 이하늘과 갈등을 빚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엑스타시"는 미국 래퍼 투파(Tupac)의 노래를 따로 구매해 합법적으로 샘플링한 건데, 당시 이하늘이 방송에서 베이비복스를 향해 "투파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빠자 좀 맞아 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인터넷에 베이비복스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죽여버리고 싶었다. 미아 리복스 파문이 일면서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났다"면서 "명예의 여자 아이들 이지 않나 방송 끝날 때마다 울면서 들어왔다. 베이비복스가 해체를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베이비복스는 1997년 데뷔해 *유연 깃털(Get Up)* *한형* *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2005년 해체됐다.

이하늘은 2008년 MBC 예능 *명랑히어로*에서 "베이비복스 사건으로 본의 아니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뉴스시스



BTS '페이크 러브'도 넘겼다

뮤직비디오 11억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페이크 러브(FAKE LOVE)' 뮤직비디오가 11억뷰를 돌파했다.

지난 23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18일 발매된 방탄소년단 정규 3집 *러브유어 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의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오전 3시44분에 11억 뷰를 넘어섰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6번째 11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페이크 러브'는 미국 빌보드 메

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0위로 진입해 6주 연속 차트인을, 러브유어 셀프 전 티어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하는 등 15주 연속 차트인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이 앨범으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발표 첫 주에 '빌보드 200' 1위와 '핫 100' 톱10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거저된 사랑을 깨달은 후 마주한 어두운 이별의 감성을 표현한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세트를 오가며 펼쳐지는 방탄소년단의 강



렬한 퍼포먼스와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가 어우러졌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번에 11억 뷰를 넘긴 '페이크 러브'와 15억뷰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를 포함해 총 36편의 역 단위 곡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시스

JEONJU intl. film festival

5.20 4. 7 22 28-

JEONJU intl. film festival

5.20 4. 7 22 28-

오는 4월 28일(목)부터 5월 7일(토)까지,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더 나은, 더 넓은, 더 먼 곳에 닿는 '영화'에 관한 상상에 동참해보세요.

JEONJU intl. film festival

5.20 4. 7 22 28-

전주시민 대상 무료 관람 행사

- ▶ 2022.4.27(수) 전주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나래코리아 콘서트
- ▶ 2022.4.30(토)·5.1(일)·5.5(목) 전주시네마타운 전주시민 대상 특별 상영회
- ▶ 2022.4.29(금)~5.6(금) 남부시장 하늘정원 외 5곳 골목상영·야외상영

JEONJU intl. film festival

5.20 4. 7 22 28-